

##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며

1956년 창간된 月刊『考試界』가 금년 6월호(통권772호)로써 창간 6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66년 동안 月刊『考試界』를 변함없이 애독해 주시는 수많은 독자분들, 그동안 주옥같은 글을 보내주신 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 말씀을 전해 드린다.

6. 25 전쟁으로 전국이 황폐했던 1950년대에 창간된 月刊『考試界』가 그동안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국내 최장수 교양잡지 <샘터>는 경영악화 등으로 폐간위기를 맞았지만, 독자들의 기부로 겨우 살아났고, 한때는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많은 구독자를 자랑하던 여성잡지들도 잇따라 폐간되었고, 시사 및 공연·예술 전문잡지들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폐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상황하에서도 66년 동안 변함없이 국가 우수인재 충원의 역할과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오직 한길만을 위해 달려왔다는 사실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만하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했다. 집권 4년 공과를 설명하고 남은 1년 국민협조를 구하는 마

지막 기회였음에도 문 대통령은 ‘마이웨이’ 태도를 고수했다. 지난 4년의 실정을 반성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국민이 많았지만 희망의 메시지는 찾기 힘들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그동안의 기억을 떠올리며 많은 국민이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통의 정치, 고른 인재등용,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1년을 앞둔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30% 가까이 치솟았다. 4년 동안 씬없이 계속된 집값폭등과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 하위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분배도 악화했다. 나라건, 기업이건, 가계건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경제는 작은 충격에도 휘청거릴 정도로 살얼음판 위에서만 있다. 이제는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나와 우리 편만이 옳다.”는 도그마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무능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정 상 훈

- 月刊『考試界』 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 · 미디어북 대표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세계본부 지원의장



가장 공정한 사법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법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과 법률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적인 재판이다.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개인적으로 갖는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는다.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작용이 아니다. 특히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념적인 사조직이다.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다.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법관의 약 14%에 불과한 특정이념 집단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하는 일이다.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어느 특정의 사조직이 지배하는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기가 쉽다. 오히려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어기관으로 변질하여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법관들이 입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별한 관심한 기대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면서 날이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그 결과로 최근 완료한 검사채용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데 이어 합격한 수사관 20명 중 2명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기도 전에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의도에서 설립했든지 간에 공수처는 원래 ‘살아 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위상이 추락하고 조직이 흔들리는 것도 공수처의 존재이유에 반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권의 견제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권이나 청와대와 과감히 단절하는 결단성을 보여야 한다.

현재 로스쿨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벌 줄세우기 ‘반수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로스쿨생들은 “원하는 대형로펌에 취업하기 위해선 이른바 ‘SKY’ 로스쿨은 졸업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어느 로스쿨을 나왔는지가 우리 사회에선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반수열풍’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자퇴·미복학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이 2018년 217명, 2019년 1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퇴생은 같은 기간 171명, 148명으로 중도이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출신학교를 중시하는 풍조가 꼽힌다. 대형로펌에 취직하거나, 서울에서 변호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진 로스쿨을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팽배하다. 주요 대형로펌 신입변호사 채용현황도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한다. 최근 분석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주요 12개 로펌에 입사한 신입 변호사 235명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04명, 연세대가 41명, 고려대가 40명으로 이들 세 학교 출신이 78.7%를 차지하였다. ‘반수열풍’의 또 다른 이유는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별 합격률을 따져보고, 합격률이 높은 학교로 재입학한다는 설명이다. 학교수업의 질이나 교수진 실력에 따라 합격률이 관가름나기 때문에 질 높은 수업을 받기 위해 반수를 마다치 않는 셈이다.

현재로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실패한 제도로 보인다.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법조인의 질적 향상도 없다. 그리고 과별이나 학연의 사슬을 끊지도 못하고 있다. 변호사의 질적 하락은 결국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로스쿨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해야 한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기업이 100마일의 속도로 변할 때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법과 법조계는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빨리 변화하여서도 안 되지만, 변화가 너무 더디어 다른 분야와 충돌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사회발전이 걸림돌이 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月刊『考試界』도 발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月刊『考試界』도 변하지 않으면 독자들의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난 66년 동안 꾸준히 月刊『考試界』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변화에 주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